

배구·축구

8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스토리 발리볼 | 현대캐피탈·흥국생명 이 유리한 고지 점령한 원동력



스피드 배구는 세계배구의 흐름이다. 한국 배구도 이 흐름에 편승해 변화하고 있다. 스피드배구가 자리매김하면서 중앙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미들블로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사진제공 | KOVO

봄 배구 패권 '미들블로커 전쟁'서 결판난다

중앙싸움서 우위 점한 현대캐피탈 블로킹 등 미들블로커 득점서 앞서 여자부 3차전서 흐름 바꾼 김나희 9개 블로킹으로 '흥국' 공격에 활기



“좋은 윙 공격수가 있는 팀은 리그에서 재미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우승은 못한다. 좋은 미들블로커가 없으면 불안해진다.”

누구보다 국제배구의 흐름에 해박한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이 24일 현대캐피탈과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을 앞두고 털어놓은 얘기였다. 그는 “다른 리그를 보더라도 우승이 많은 팀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미들블로커를 데리고 있다. 미들블로커는 결정적일 때 필요한 역할을 해준다”며 “마무리를 하는 선수다. 스피드배구에서는 더욱 미들블로커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V리그의 우승은 세터가 좋은

팀 혹은 외국인선수가 주로 맡는 주공격수 능력이 탁월한 팀이 차지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것을 잘 보여준 팀이 삼성화재였다. 안정적인 연결을 하는 세터와 토종선수들의 정확한 2단 연결로 외국인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서 우승공식을 만들어냈다. 이 신화를 가장 먼저 깬 사람이 OK저축은행 김세진 전 감독이었다. 세계적인 미들블로커 시몬을 영입해 강한 서브공략에 이은 블로킹과 시몬의 역량을 극대화 시킨 공격패턴을 앞세워 2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엮어냈다.

세계배구의 흐름과 떨어져 높이고 파워만을 외치던 우리 배구도 차츰 스피드배구에 발을 맞춰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8~2019시즌 도드람 V리그 챔피언결정전은 미들블로커의 역할에서 승패가 갈리고 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이 인천 원정에서 대한항공을 이긴 원동력은 중앙에서의 우위였다. 1차전 13-7, 2차전 16-10으로 블로킹

득점에서 앞섰다. 득점과 공격점유율도 차이가 났다. 1차전에서 대한항공의 미들블로커 김규민~진상현~진성태는 16득점, 1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캐피탈은 최민호~신영석이 18득점, 17% 점유율로 비슷하게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7득점, 10%의 대한항공에 비해 17득점, 17% 점유율의 현대캐피탈이 중앙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 대한항공 미들블로커들은 경기 도중 전력분석원에게 상대의 공격패턴과 코스 등을 물어보며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25일 김천에서 벌어진 도로공사-흥국생명의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도 흥국생명 미들블로커 김나희의 등장으로 도로공사에 유리하던 흐름이 사라져버렸다. 도로공사는 1,2차전동안 19·17득점, 20%·26%의 공격점유율로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배구를 했다. 블로킹도 8-6, 7-4로 앞섰다. 흥국생명은 1,2차전에서 김세영~이주

아가 9득점을 합작했고, 점유율도 13%·19%에 그쳤다.

하지만 김나희가 신인 이주아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3차전은 달랐다. 공격득점 17-19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블로킹은 11-6으로 더 앞섰다. 점유율도 16%, 18%로 비슷비슷했다. 김나희의 빠른 움직임 덕분에 공격패턴이 다양해져 조송화의 연결이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김나희가 9개의 유효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을 버텨 주자 도로공사의 장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 싸움에서 뒤지지 않은 흥국생명은 5세트에 이재영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으로 승리를 따냈다. 1라운드 김천 원정에서 도로공사에 먼저 2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 중반부터 김나희를 투입해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3-2 역전승리를 따냈던 당시를 기억하던 박미희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3차전이다.

김종천 기자 marco@donga.com



벤투 감독

벤투호 2022카타르월드컵 예선 일정

9월부터 2차예선 돌입 아시아컵 예선도 겸해 (2023)

본선 48개국 확대면 예선방식 변경

축구국가대표팀은 올해 9월부터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월드컵 1차 예선을 6월부터 진행한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 따라 1차 예선을 면제 받았다. 2차 예선전부터 출전한다. 1차 예선을 통과한 6개국과 FIFA랭킹에 따라 2차 예선에 직행한 34개국 등 총 40개국이 8개 그룹으로 나눠 경기를 갖는다. 2차 예선은 올해 9월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홈&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예선은 2023년 AFC 아시안컵 예선을 겸한다. 2차 예선 각 조 1위와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팀 등 총 12개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진출함과 동시에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 FIFA는 카타르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49·스위스)은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카타르월드컵부터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지난해 FIFA 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들어 다시 언론을 통해 카타르월드컵의 본선 진출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타르월드컵의 본선 진출국 확대 여부는 6월 프랑스에서 예정된 FIFA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FIFA총회에서 기존(본선 32개국 체제)대로 카타르월드컵을 치르고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본선 진출국을 48개로 늘려 카타르월드컵을 진행하기로 한다면 각 대륙별 월드컵 출전 쿼터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예선방식 변경 가능성이 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6일 “FIFA 총회를 지켜봐야 한다. AFC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바는 없다. 협회는 월드컵 2차 예선이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고 보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매번 문턱서 좌절한 부산…승격 위해 부족한 2% 채울 것”

친정 컴백 부산 아이파크 조덕제 감독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조덕제 감독(54)은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 사이에서 ‘운동하는 지도자’로 정평이 났다.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조깅으로 몸을 달군 뒤 클럽하우스 1층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방문해 비 오듯 땀을 흘린다. 벌써 수십 년 이어온 조기축구 일정도 잊지 않고 챙긴다. 현역선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운동량이다.

“하나원큐 K리그2 2019” 초반 레이스에서 승리와 무승부, 패배를 각각 한 차례씩 거두며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조 감독은 A매치 휴식기 사이 스포츠동아와 만나 “사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체중이 6kg이나 불었다. 1996년 은퇴 이후 조기축구를 빼놓지 않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살이 쪘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리고는 “누가 뭐래도 아침 운동은 내 삶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을 친정팀 부산에 쏟으려고 한다. 내가 몸담았던 23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K리그 승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부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2019년 부산이 그려나갈 이야기를 들어봤다.

●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24년만의 친정 복귀다.

“지도자는 어느 팀을 가도 비슷한 감정이 들기 마련이다. 그저 좋은 선수들과 함께 훌륭한 성적을 내야 한다는 마음가짐 말이다. 그래도 친정이라는 곳은 느낌이 조금 다르긴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조덕제 감독은 친정팀의 K리그 승격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조 감독은 수원FC 감독시절인 2015년 팀을 K리그1에 승격시킨 경험이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24년만에 부산에 오니 감회가 새로워 2015년 부산과 승격 PO 운명의 장난 노상래·이기형 코치와 의기투합 했죠 나 역시 공격축구 구상…기대하시라

하더라. 24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다.”

-부임 과정이 궁금하다.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몇몇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협의를 거치면서 시일이 늘어났다. 그런데 부산으로부터도 제안이 왔다. 사실 마음속으로 ‘부산 지휘봉을 잡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다. 그래서 쉽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밖에서 본 부산은 어땠나.

“전임 감독님께서 팀을 잘 만들어 놓으셨다. 덕분에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승격 플레이오프(PO)에 나갈 수 있었다. 지난해 역시 K리그1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아쉽게 FC서울에게 발목이 잡혔다. 사실상 승격까지 2% 정도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 코칭스태프가 채워 나가야 할 몫이다.”

-매번 승격 문턱에서 좌절한 부산이다.

“밖에서 본 나도 아쉬웠는데 안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는가?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희망 요소다.”

-공교롭게도 수원FC 사령탑을 지내던 2015년 부산과 승격 PO에서 맞붙어 이겼다.

“운명의 장난 아닌(웃음). 당시 경기 이후 몇몇 부산 축구팬들께서 그러시더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음에 오셔서 (K리그1으로) 올려놓고 가셔달라고.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해야 한다.”

● “코치들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든든할 따름!”

-메머드급 코칭스태프로 화제를 모았다. “노상래(49) 선생과 이기형(45) 선생과는 2016년 P급 지도자 수업을 받을 때 같은 인연

을 맺었다(조 감독은 두 코치를 ‘선생’으로 불렀다). 그때 ‘누구든 감독으로 가게 되면 코치로 같이 한 번 일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부산으로 오게 돼서 두 후배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봤고, 모두 흔쾌히 응해 함께하게 됐다. 사실 노 선생과 이 선생은 두 K리그에서 사령탑을 지냈던 분들 아닌가. 그럼에도 K리그2 지도자, 그것도 코치로 와달라는 부탁에 기꺼이 응해줬다. 그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코치 이름값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선배와 후배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나와 두 선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중한 코치들이 있어 든든할 따름이다.”

-어떻게 부산을 이끌지 궁금하다.

“지난해 부산의 기록을 살펴보니 득점은 가장 많았고, 실점은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곧 부산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팀임을 뜻한다. 나 역시 공격적인 색깔의 축구를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 게임에서 더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기대하셔도 좋을 듯하다.”

-수원FC 시절의 승격과 강등 경험도 큰 약이 될 텐데.

“감독으로서 값진 경험을 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축구를 원 없이 했다. 다만 승강 경험이 적다 보니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승격은 했지만 그 이후의 준비가 미흡했다. 이제는 당시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여러 사령탑들로부터 견제 아닌 견제를 받았다.

“오히려 이러한 견제가 고맙다. 우리가 미디어데이 자리에서 우승후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구단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따름 아닌가, 하하.” 고훈준 기자 shutoul@donga.com